

## 이선관 시에 나타난 ‘웃음’ 연구\*

오 덕 애\*\*

### 차 례

- |                   |                 |
|-------------------|-----------------|
| 1. 서론             | 4. 언어유희와 조롱의 웃음 |
| 2. 일회성의 가짜 웃음     | 5. 결론           |
| 3. 정치권력과 세태비판의 웃음 |                 |

### 국문초록

본고는 이선관 시에 나타난 웃음을 일회성의 가짜 웃음, 정치권력과 세태비판의 웃음, 언어유희와 조롱의 웃음으로 나누어서 살폈다. 그가 시 속에서 보여주는 감정적 웃음인 일회성의 가짜 웃음은 울음을 동반하고 나타났으며, 양가감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애매모호하다. 화자는 웃음을 발견하기 위해 마산의 창동 사거리를 자주 산책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인색함, 웃음 없음, 비웃음, 가짜 웃음 소리였다. 웃음에 인색한 군중들 속에서도 화자는 웃음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계속적으로 창동 사거리를 서성거리며, 군중들 속으로 밀려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4215)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고 밀려옴으로써 안정감을 얻고자한다. 왜냐하면 웃음을 거부당한다는 것은 자신을 거부당하는 것이며,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삶에 지장을 초래한다.

정치권력과 세대비판의 웃음은 풍자가 주를 이룬다. 정치적 측면의 풍자로는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의 반복행위와 말, 형태에서 형태에로의 이행을 통해서 그만의 독특한 웃음 방식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선관은 이중 격하, 수수께끼, 기계처럼 반복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풍자적 웃음을 유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중 격하이다. 즉 격하의 격하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화시켜버리는 독특한 웃음 전략이다. 그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한자성어, 우스개, 비속어들을 사용한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위계질서의 영역을 교차하고 의미에 차이를 발생시키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방의 웃음을 선사한다.

주제어 : 웃음, 양가감정, 이중 격하, 그로테스크, 반복, 이행, 상호텍스트성, 수수께끼

## 1. 서론

이선관(1942-2005)<sup>1)</sup>은 마산에서 평생 시작(詩作) 활동에 전념하였으

1) 이선관은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릴적 백일해 치료를 위해 먹은 약이 잘못되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1969년 『기형의 노래』라는 시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병으로 인해 2005년 12월 14일 오전 8시 45분 마산의료원에서 별세하였다. 이선관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13권의 개인 시집과 지면에 발표한 수필 다수가 말해준다. 시인은 마산시문화상, 마창불교문화상, 창원환경연합이 제정한 녹색문화상, 김달진 문학

며, 마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이러한 사랑이 지역사랑을 넘어 전 지구적 사랑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만의 시적 특징을 지닌다. 그는 시인으로서 부당한 현실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시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선관의 이러한 시 정신은 그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미사여구나 비유가 가득한 시 쓰기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즉,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시 쓰기를 즐겼다. 이것은 독자에게 그의 시를 쉽게 접하게 하고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그의 전략을 이해하지 않고 그의 시를 접한다면 시적 역량 미달의 문제로 볼 우려도 간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쉽고, 솔직한 것이 그의 시적 전략이었음을 파악한다면 이선관의 시 세계는 뚜렷한 그만의 주제의식으로 이어진 독특한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의 시는 대략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독재정치 등 권력에 대한 비판, 둘째, 급속한 산업화와 과도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과 생태의식, 셋째, 남북 분단에 대한 성찰과 통일에 대한 소망, 넷째,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보통 이러한 큼직한 주제가 한 시인의 텍스트 속에서 주류를 이루며 발견되기는 쉽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큼직하고 묵직한 주제에 어려운 비유나 미사여구가 들어간다면 읽는 독자는 부담감을 느낄 것이며, 의미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따라서 시인은 이를 감안하여 가볍거나 쉽게 글을 쓰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sup>2)</sup>

제 통일부 제정 제1회 통일문학 공모상, 교보환경문화상 환경문화예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집으로는 『기형의 노래』, 계명대학교출판부, 1969; 『인간 선언』, 한성출판사, 1973; 『독수대』, 문성출판사, 1977; 『보통시민』, 청운사, 1983; 『나는 시인인가』, 풀빛, 1985; 『살이 살과 닿는다는 것은』, 시대문학사, 1989; 『창동 허세비의 꿈』, 시와 사회사, 1994; 『지구촌에 주인은 없다』, 살림터, 1997; 『우리는 오늘 그대 곁으로 간다』, 실천문학사, 2000; 『배추흰나비를 보았습니다』, 도서출판 담계, 2002;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도서출판 스타, 2003; 『어머니』, 선출판사, 2004; 유고시집으로 『나무들은 말한다』, 마보새출판사, 2006이 있다.

2) 배대회는 이선관 시의 미학을 경쾌함과 쉬움, 기록성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배대

이선관은 시 속에서 정치권력의 비판, 분단의 문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소수 타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독자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다. 연구자가 시인을 주목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계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시인의 손을 떠난 작품은 이미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텍스트를 해독하고 읽는 독자들이 중요하고, 특히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시인이 위와 같은 4가지의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미사여구나 어려운 비유, 무거운 포즈만을 즐겨 취한다면 독자들은 해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웃음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를 금방 외면해 버리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텍스트 속에서 그만의 방법을 통해 웃음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해방감을 안겨준다. 그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최근 학술연구, 심포지엄<sup>3)</sup> 등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

화, 『이선관 시의 미학적 특성』, 『가라문화』 24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2, 56쪽-60쪽 참고.

- 3) 이선관에 대한 심포지엄이 2006년 추모 1주기를 시작점으로 하여 매해 열린다. 여기서 발표한 다양한 주제들은 공간성, 생명의식, 시인이 장애인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인간소외와 단절로 인한 고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공간성 연구로는 남송우, 방민호, 문홍술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이선관이 마산이라는 공간을 떠나지 않고 살았지만 그 공간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창동네거리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한다. 남송우, 『이선관 시인의 현실인식과 세계에 대한 시적 저항 방식』, 『이선관 시세계 학술심포지엄』, 2006, 5-22쪽; 방민호, 『네거리의 시인-이선관 시』, 『문학심포지엄』, 2011, 7-21쪽; 문홍술, 『초기 시에 나타난 원죄의식과 현대인의 소외-이선관론』, 같은 책, 25-33쪽. 신덕룡과 배대화는 이선관의 시가 마산의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생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한다. 신덕룡, 『이선관 시에 나타난 생명의식』, 『이선관 시세계 학술심포지엄』, 2006, 23-29쪽; 배대화, 『이선관의 실천적 시세계의 시학적 특성: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선관 시세계 학술심포지엄』, 2006, 30-44쪽.

한편 구모룡은 이선관이 개인적인 장애의 고통을 통해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점으로 나아갔으며, 사랑을 실천했다고 보았다. 이성모는 이선관의 시 속에서 고통과 우울이 몽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논

다. 시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주제적 측면의 연구, 미학적 연구, 공간성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적 측면의 연구로 신덕룡과 한정호의 논문이 있다.<sup>4)</sup> 신덕룡은 이선관 시의 변모 양상을 환경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였고 인간 중심의 환경 시에서 생태 시로 나아간다고 이해했다. 그는 이선관의 환경 시가 1970년대 시작되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환경 시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인 것을 감안할 때 이선관의 환경오염에 대한 시가 훨씬 앞선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신덕룡의 연구는 이선관의 시가 한국 환경시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문단에서 주목해야 할 시인임을 평가한 것으로 의의를 지닌다. 반면 한정호는 이선관 시 세계의 특성과 함께 그동안 시인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가려져 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그는 이선관의 시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특성을 사람, 자연, 나라,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해했다. 한정호의 연구는 시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재조명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영탁<sup>5)</sup>은 이선관 시의 공간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선관이 나서 자

---

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시적 역량의 문제다. 남송우는 이선관의 시문법구조의 단순함을, 신덕룡은 고발과 비판의 시가 가진 일회적인 성격으로 인한 시적 완성도를, 배대화는 여과되지 않은 일상어의 사용을 시적 표현의 미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주의 연구는 이와 달리 이선관의 시적 언어가 생명의 정직한 표현이라고 봄으로써 새로운 방법론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후에 심포지엄이 계속되면서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시적역량 문제로 보기보다 이선관 시인만의 독특한 미학적 전략이었음을 발견하게 한다. 구모룡, 「고통과 사랑, 이선관의 시적 지평」, 『시에』 제3호, 김달진문화관, 2010, 6-17쪽; 이성모, 「이선관 시 정신사」, 같은 책, 246-277쪽; 김문주, 「말의 원음, 거룩한 야생으로 돌아가는 길」, 『문학심포지엄』, 2010, 6-17쪽.

4) 신덕룡, 「이선관 시 연구: 세계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6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133-154쪽.

한정호, 「이선관 시의 사랑 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5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47-384쪽.

랐던 마산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에 집중하였다. 시인에게 있어서 마산의 중심이었던 창동은 부정적인 공간인 동시에 긍정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소외감과 소통의 불능을 느낄 때 마산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작용하지만, 시인이 마산의 문화공간을 방문하고 문학인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공간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이영탁의 논의는 시인의 시 속에 나타나는 현실 체험 공간이 시인에게 끼친 영향을 내·외적으로 살핀 첫 학위논문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공간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자들과 크게 변별점을 지니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 배대화의 논문이 있다. 배대화<sup>6)</sup>는 이선관 시의 미학적 특성을 경쾌함, 쉬움, 기록성으로 보았다. 그는 이선관의 시가 1970-1980년대 군부독재권력 및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만의 경쾌함과 쉬움을 유지한다고 언급한다. 이것이 바로 미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배대화의 연구는 이선관 시의 특징을 미학의 측면에서 살핀 것으로 시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13권의 시집 분량에서 인용문에 실린 몇몇의 시들만으로 미학적 특징을 살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 역시 이러한 부분을 논문 각주에서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보완하거나 의미를 넓혀야 할 타당성을 확인한 셈이다.<sup>7)</sup>

5) 이영탁, 『이선관 시의 공간성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12.

6) 배대화, 『이선관 시의 미학적 특성』, 『가라문화』 24권, 경남대학교가라문화연구소, 2017, 53-57쪽.

그의 논문으로 『이선관의 실천적 시세계의 시학적 특성: 초기시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0권,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3-59쪽으로 이선관 시세계의 특성을 초기시를 중심으로 살핀 연구가 있다. 이는 이선관 시의 미학적 특성이 포괄한다고 보아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각주처리만 한다.

7) “물론 이선관 시가 지닌 미학적 특성은 ‘경쾌함’과 ‘쉬움’만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다. ‘간결함’ 역시 그의 시의 주요한 특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의 시가 지니는 특성은 더 깊이 있는 읽기와 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배대화, 앞의 책, 70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선관 시 속에 나타나는 '웃음'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이선관 시집 13권 전부를 연구 텍스트로 하겠다.<sup>8)</sup> 연구방법으로는 바흐친과 베르그송의 웃음 이론, 사회 역사적 방법론, 웃음의 심리학적 이론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선관은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고자 애를 썼으며, 그의 전체 시들이 주로 관계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첫 시집에서는 화자가 소수 타자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사람들 속에 함께 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생각들은 점점 더 확대되어 전 지구적인 유대관계, 즉 개체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성과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성, 민중성과 연관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 2. 일회성의 가짜 웃음

이선관의 시 속에 나타나는 감정적 웃음에는 항상 울음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시로는 「밤의 대화」, 「첫울음」, 「약」, 「부탁」 등이 있다. 「밤의 대화」에서는 소녀의 미소와 울음을 통해서, 「첫울음」에서는 아기의 울음과 어머니의 미소를 대비시킴으로써 드러낸다. 이외에 시 「약」과 「부탁」을 통해서 웃음과 울음이 섞인 모호한 표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양가감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웃음과 울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웃음과 울음의 거리를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반되는 의미나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즉 웃음과 울음의 의미와 거리를 역전시킨다. 이는 어떤 개념이나 의미도 우리의 사고 속에서 단정되거나 포획될 수 없음을

8) 이선관, 배대화·우무석 엮음, 『이선관 시 전집』, 불휘미디어, 2015.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시는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며, 제목만 표기하기로 한다.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그가 시의 언어들을 정제하지 않고 썼던 그만의 방식과도 연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감정적 웃음의 또 다른 특징은 없음과 인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시인에게 있어 감정적인 ‘웃음’은 인색한 것이거나 ‘허무’ 한 것으로 형상화된다. 그는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산 창동 사거리를 일상처럼 거닐었다. 창동은 시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특별한 장소이자 광장이었으나 그곳에서 만나는 군중의 모습은 웃음 없음이거나 인색함이다. 이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리를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다.

웃음이 인색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를 찾는 이도 없이  
약속한 자도 없는데  
서성거린다.

- 「창동 네거리·Ⅱ」 부분 -

화자는 창동 네거리에 약속도 없는데 나가서 서성거린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어 웃음에 인색하다. 화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통의 단절과 소외감을 느낀다. 여기서 웃음에 인색한 사람들이란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그들은 팍팍한 삶 속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으며, 자기중심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 곁에 서성거리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화자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왜냐하면 그가 유일하게 타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창동 네거리였기 때문이다.

화자는 “바이칼 호수의 얼음 속 보다” “희맑은” “창동 거리의 쇼-윈도 에” 자신의 몸을 비춰 봄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웃음은 웃는 사람의 정신적 상태와 의도를 드러내는 상징체계”<sup>9)</sup>인데 거리의 사람들은 웃음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에게 다가설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며, 웃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군중 속에 개인으로서 소통을 거부당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선관이 시적 화자를 통해 창동 네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하고자 한 것은 새롭다. ‘웃음’은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고 긴장감을 이완시킴으로써 타자와의 거리를 좁혀준다. 따라서 타자와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시인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창동의 네거리를 자주 산책하였고 그 속에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절실히 경험하였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철저하게 소외된 자신을 발견한 그곳에서 ‘웃음’을 발견하고자 한 그의 시선은 단순한 감정적 웃음을 넘어 끈질긴 생명력의 발견이다. 그것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발아하는 ‘민중’의 웃음이며, 타자와 연결되는 근원이다.

외로우면 말하십시오  
당신 가는 길 외로운 길이라오

서러우면 말하십시오  
당신 가는 길 서러운 길이라오

웃음 없이 그냥 가시오  
당신 가는 길 웃음 없다오

- 「길」 부분 -

화자는 길을 가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길은 인간 제각각의 삶을 상징한다. 그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외롭고” “서러우면 말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가는 길은 이미

9) 에릭 스마자, 서상훈 옮김, 『웃음』, 눈출판그룹, 2017, 서문.

“서럽고” “외로운” 길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길을 가는 대상에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화자가 보기에 그가 가는 길에는 웃음이 없다. 그래서 그를 향해 “웃음 없이 그냥 가”라고 주문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화자가 삶을 살아가는 대상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즉 화자는 자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웃음을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반복적으로 웃음 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웃음을 찾고 싶은 심정이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웃음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 결과를 만들어낸다”<sup>10)</sup>라고 했을 때, 웃음 없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화자가 보기에 현실사회는 그에게 웃음의 틈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화자가 집단속에서 소외되고 배척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인간은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욕망의 과정을 통해 뇌의 크기도 커졌다고 주장한다.<sup>11)</sup> 화자가 말하는 ‘길’이 삶과 등가를 이루고 있다고 볼 때, 그가 고통스러움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길을 나서는 것은 사회의 집단속에 속하고 싶은 심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웃음 없이 그냥 가시오”라는 말은 화자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웃음을 웃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고 갈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당신 가는 길 웃음 없시오”라는 화자의 단정적인 어조에서 사회가 그에게 보여준 매정함과 화자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사회가 나에게 보여준 웃음 없음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사회 적응력에도 타격을 준다. 화자에 대한 집단의 사교적인 거부이며 동시에 추방으로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와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준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의 텍스트에서 감정적 웃음이 왜 양가성을 띠고 드

10) 마리안 라프랑스, 윤영삼 옮김, 『웃음의 심리학』, 중앙books, 2012, 85쪽.

11) 위의 책, 92쪽.

러나거나 '웃음 없음·인색함'으로 나타나는지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시 「그들이 주는 한 줄기 은빛마냥」에서도 화자는 웃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슬프게도 꿈에서만 웃음을 찾는  
나의 구멍 뚫린 가슴은  
원하는 은하수의 가장자리를 거닐고 싶어서

언제까지나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주는 한 줄기 은빛 만큼  
맑아질까 새로워질까  
구멍 뚫린 나의 가슴은.

- 「그들이 주는 한 줄기 은빛마냥」 부분 -

웃음 없음은 그의 가슴에 삶이 허무하다는 결과를 안겨준다. 인간이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곁돌 때, 거부당했을 때, 그 자괴감과 무력감은 엄청난 것이다. 화자의 이러한 마음은 “슬프게도 꿈에서만 웃음을 찾는”다는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역설적이게도 웃음은 기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찾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에게 웃음은 꿈에서라도 찾아야 할 것으로 그만큼 절실한 삶의 과제였다. 심리학자들은 웃음이란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낯선 남자 앞에서 부끄러움의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숙이는 이유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웃는데 이는 자신을 해치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시적 화자가 웃음을 거부당한 것은 그를 거부당한 것이며, 관계성과 삶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기도 하다. 이처럼 웃음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꿈에서만 웃음을 찾는 자신의 삶 속에서 허무하고 슬픈 감정

---

12) 위의 책, 68쪽.

을 느낀다. 그에게 웃음을 허락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은 “그들이 주는 한 줄기” 빛 만큼이다. 그래도 그는 그 웃음의 틈새를 “맑아질까 새로워질까”하고 “구멍 뚫린 가슴”으로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웃음 찾기는 결국 타락한 일회성 가짜 웃음과 마주하게 되고 사회비판과 성찰의 눈을 가지게 만든다.

이때 “사랑은 Money예요”하면서  
한 번 웃고 스쳐간 그 여자다  
소매치기를 당하고는  
발걸음은 교회실로 옮기면  
어느새 뺨이가 된다. 빈혈증에 걸려

침묵의 바다 속으로  
침몰되고 있었다.

- 「침묵세대 · V」 부분 -

화자는 창동 거리의 군중들 속에서 이리저리 밀린다. 군중이란 어떤 공간에 있는 무리와 그 무리가 만들어내는 인간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군중의 심리는 다수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며, 반대의 경우 위협해질 것을 감지한다. 위의 시에 나타나는 군중들은 “슬프디 슬픈 군중들”이다. 즉 이들은 시간에 쫓기는 군중들로 기쁨과는 거리가 먼 군중들이다. 창동이라는 거리는 마산의 변화가로 상업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상징한다. 화자는 시간에 쫓기면서 과도한 물질을 추구하고, 소비를 지향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슬프디 슬픈” 표정을 읽어낸다. 이들은 창동이라는 공간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소비를 지향하면서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 밑바탕에는 평등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군중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개인의 삶터로 돌아갔을 때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업화로 변화가인 창동의 군중 속에서 밀려가고 밀려올 때만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창동이라는 거리를 벗어나면 소외된 개인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화자는 “슬프디 슬픈 군중들 틈에 끼었다는” 것 만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앞서 살폈듯이 그가 사회 집단 속에 속하고자 간절히 웃음을 보였을 때 사회 집단은 “웃음 없음”으로 그를 되돌려 보냈다. 화자는 군중들 틈에 끼어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고 있었지”만 만족스러워한다. 그것은 자신도 그들과 함께 평등해졌다는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다수 속에 속해 있음으로써 불안감을 떨치고 안전함을 느낌으로써 만족감을 체험한다. 엘리야스 카네티는 군중의 특징 중 하나로 평등을 들었다. 군중 내부에는 평등이 지배하고 있으며, 군중이 형성되는 건 이 평등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sup>13)</sup>

“사랑은 Money예요”하는 여자의 웃음은 돈 때문에 웃는 일회성의 가짜 웃음이다. 화자가 소중하게 찾았던 “웃음”은 돈으로 환산되고 교환된다. “한 번 웃고 스쳐간 여자”의 웃음은 그를 죄짓게 하고 고회실로 가게 만들어버린다. 이는 상업자본주의와 과도한 물질주의가 인간의 웃음과 육체마저 돈으로 환산하고 교환할 수 있게 타락하였음을 시사한다. 화자는 웃음을 어렵게 발견했지만 그것은 돈으로 사야 하는 일회성의 타락한 웃음이며, 소통의 단절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 「창동 네거리 · III」 부분 -

모든 사연을 잠시 잃어버리고 싶은  
어느 다실에서

13) 엘리야스 카네티, 강두식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10, ‘군중과 역사’ 참고.

나는 텅 빈 소리껍질 모양 웃음이 많고

- 「어느 다실에서」 부분

화자는 끊임없이 웃음소리를 찾아 거리로 다실로 장소를 옮긴다. 『창동 네거리·Ⅲ』에서 그가 발견한 웃음은 “이상한 웃음소리”이다. “아무도 짝 지을 수 없는” 소외된 타자의 등 뒤에서 웃는 웃음소리는 그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감지하고 뒤돌아보는 것이다. 이렇듯이 화자의 등 뒤에서 보내오는 “이상한 웃음”은 그를 “혼자로”, “고개 숙여” 견뎌 하고 낮설게 만듦으로써 관계 속으로 가까이 갈 수 없게 거부해 버린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에 억양이 있듯이 웃음에도 억양이 존재한다. 이선관이 마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반김이나 기쁨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소리였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다.

화자는 다실에서 “모든 사연을 잠시 잃어버리고 싶어” 텅 빈 소리껍질 같은 웃음을 많이 웃는다. 그에게 모든 사연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모든 사연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시적 화자가 주체라면 모든 사연은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음은 기쁨보다 허무한 웃음이며 일회성의 거짓웃음이다. 그에게 웃음은 기쁨의 감정보다는 허무하거나 슬픔, 고독, 소외와 함께 나타난다. 그가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잃어버리고 싶은 사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화자가 웃는 웃음은 억지웃음이며, 불안한 감정을 잠시 덮는 포장 역할을 한다. 그가 “텅 빈 소리껍질 같은 웃음”을 많이 웃는다는 것은 “상냥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4)</sup>

14) 마리안 라프랑스, 앞의 책, 324쪽.

실제 이선관 시인은 창동 네거리를 거의 매일 산책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 스스로 '창동 허새비(허수아비의 방언)'로 불리기를 즐겼다.<sup>15)</sup> 허수아비는 그 이미지 상 가을 들판에 서서 곡식을 지키고 겨울이면 빈 들판에서 허허롭게 있다가 다시 가을에 쓰인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조롱조로 사용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허수아비는 미소와 조소가 겹쳐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선관이 지향했던 별칭인 허수아비는 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웃음의 감정에서 허수아비의 이미지를 본다면 '미소와 조소가 겹쳐진 이중적인 의미와 맞물려 돌아간다.

허수아비는 그 생김새가 인간을 닮아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하지만 곡식을 탐내는 참새나 들짐승들에게는 놀라서 달아나게 하는 대상이다. 이 역시 웃음과 공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즉 '허수아비'라는 그의 별칭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인이 문학 속에서 지향했던 '웃음'의 세계와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허수아비는 우리의 역사상 들판에서부터 무속신앙, 전쟁터(임진왜란) 등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등장하지만 모두 "가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sup>16)</sup> 하지만 시인의 별칭인 허수아비는 진짜 사람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선관의 별칭인 허수아비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선사한다.

이선관 시인의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웃음, 또는 웃음에 관련된 단어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끊임없이 '웃음'을 찾아 헤메지만 웃음은 '인색'하거나

15) 이선관은 『창동 허새비의 꿈』이라는 시집을 발표 하였고 그 속에 '마산, 그 창동의 허새비'라는 시를 재수록 하였다. 창작년도가 1987년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이 시의 최초 출처는 1986년에 간행된 『경남문학』 제5호이다. 『이선관 시 전집』, 앞의 책, 356쪽.

16) 디자인 디비 편집부, 『디자인 디비』, 주)뉴스한국, 2002, 24쪽.

‘없음’, ‘허무’, ‘일회성의 가짜 웃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웃음은 그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며, 소통이라는 창구였다. 하지만 현실사회는 그에게 웃음을 허락하지 않았고 웃어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소외와 단절을 체감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웃음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선관 시인의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의 가짜 웃음’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건강한 첫아들의 출산과 만나면서 자신의 장애에 집중되었던 웃음 찾기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sup>17)</sup>

### 3. 정치권력과 세태비판의 웃음

이선관은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문학적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대부분 풍자적 웃음의 시는 정치권력과 세태비판의 시다. 에브람즈(M. H. Abrams)는 “풍자는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재미있어하는 태도나 경멸, 조소, 분노의 태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문학상의 기교”라고 정의한다. 즉 코미디가 웃음을 자아내는 것 자체가 주목적이라면 풍자는 그 대상을 공격하고 조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흔히

17) 이선관이 감정적 웃음 찾기에서 미학적 웃음으로 나아간 계기는 ‘일회성의 가짜 웃음’ 발견과 활발한 문학 교류에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아이의 출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선관은 초창기 시에서 자기중심적 사유를 보이며, 장애인으로서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토로한다. 그는 유서를 써 놓고 집을 나가는 등 열등감에 시달렸음을 회고하고 있다. 이선관이 이러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해방된 것은 건강한 첫아들의 출산과 관련을 지닌다. 그는 자신의 연작시 『어머니 14』에서 “저는 아이를 낳으면 저와 같은 장애자를/ 낳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우로 그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형상화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등감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한다. 건강한 첫아들의 출산은 지금까지 자신의 장애에 집중했던 사유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생명, 즉 타자애로 시야를 넓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듯하다.



사용되는 풍자는 한 개인을 목표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인간형이나 계급, 제도나 국가, 혹은 전 인류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sup>18)</sup> 아래의 시에서 이선관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발음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풍자함으로써 웃음의 효과를 수행하고 있다.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똥퍼여?  
하는 소리라  
나는 두 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 「애국가」 부분 -

이 시는 1973년에 발표된 것으로 유신정권의 영향 아래 있었다. 당시 유신정권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과 독재 집권 정부에 대한 곳곳의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 그 중심에 전통문화가 자리한다. 당시 정권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나라에 충성하고 유교의 '효'를 강조함으로써 애국심을 가지게 했다. 이는 36년간의 억압된 식민과 남북 분단을 겪은 국민들에게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적 단합을 고취시키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유신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민주주의란 “우리 사회와 정치 형편에 알맞은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앞세웠다.<sup>19)</sup> 이는 표면상으로 볼 때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민족을 내세우는 통치전략이다.

18) 최재현, 『존던의 초기 시 연구 - 『엘레지』와 『풍자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128쪽.

19)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5(상)』, 1976;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7, 82쪽 재인용.

유신체제가 그토록 강조하며 내세우던 “동포” 즉 ‘민족’은 똥이나 재래식 화장실로 전락하고 만다. 시인은 유사 발음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1970년대 유신체제의 민족적 민주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유신정권은 앞으로는 민족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독재정치를 꾀하는 역설적 행위를 했다. 화자가 반복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버”리는 것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저항적 표시의 한 형태이다. 또, 반복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버리는 화자의 행위는 죽음의 이미지를 지니는 것으로 삶에서 죽음으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sup>20)</sup> 이는 유신체제하의 고통스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면서 은신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인 정치권력이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포’가 ‘똥’, 또는 똥이 가득 찬 재래식 화장실로 낮추어지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동포를 똥(재래식 화장실)으로 전락시킨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열함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똥이거나 재래식 화장실로 격하됨으로써 ‘국민’을 앞세우고 통치를 자행하고자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지배 이데올로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유신체제는 국민을 똥이나 재래식 화장실로 전락시킴으로써 스스로 격하되고 만다. 이선관은 웃음 대상을 이중 격하함으로써 웃음의 효과를 높인다.

내가 당신한테 묻노니

대답은

자유.

20) 후설은 현재의 의식이 무의식으로 전이 될 때 자아는 능동적인 자율성에서 벗어나 수동적인 상태로 전환되면서 의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절대적인 휴면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의식이나 자의식이 상실되는 상태의 영속성, 즉 자아가 다시 깨어날 수 없는 절대적 잠의 상황이 곧 ‘죽음’이다. 홍성하, 『후설에 나타난 무의식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 잠과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1집, 한국현상학회, 2003, 41쪽.

하루살이는 죽어갈 때까지  
심장이 몇 번 떨까요?

과연  
대답은  
자유 자유 자유.

- 「무제」 전문 -

화자는 수수께끼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수수께끼의 대답은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의 몫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수수께끼는 풀어야 된다. 수수께끼가 답을 필요로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자유'라는 언급의 불일치로 인해 웃음이 유발된다. 이처럼 수수께끼라는 개념과 대답은 '자유'라는 "개념과의 부적합성, 모순에서 우스꽝스러운 것의 효과는 더욱 강렬"해진다.<sup>21)</sup> 시적 화자는 수수께끼의 시작과 동시에 "문노니"라는 '고투'를 사용함으로써 무거움과 진중함이 묻어나게 한다. 그러나 진중함으로 출발한 물음은 곧 "대답은/자유."라는 발언에서 가벼워져 버린다. 우리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대비를 통해 긴장이 풀린다.

뿐만 아니라 "대답은 자유."라고 한 행에 쓰도 되는 짧은 말들을 굳이 행갈이를 하여 쓴 작가의 의도를 발견하면서 웃음이 발생한다. 즉 1연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해석한다면 시적 화자가 묻는 말을 당신이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다른 편으로는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소중한 권리와 연결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1연을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적 소중한 권리로써 해석할 경우 그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자유'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그래서 작

21) 쇼펜하우어, 광복록 옮김, 『의미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문화사, 2003, 106쪽.

가는 의도적으로 행갈이를 하여 ‘자유’를 강조하고 대답은 ‘자유’를 다음 행에 넣어 이중적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이처럼 난센스 언어는 속달과 지성을 동반한다. 이는 정교하게 숨겨진 의미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계획된 수수께끼 형식과 맞닿아 있다.<sup>22)</sup>

2연에서 황당한 화자의 질문은 1연의 신중하고 진중한 물음을 역전시키며, 웃음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에 구멍을 낸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진중함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가벼움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화자가 진중하게 물었던 물음은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하루살이에 대한 질문이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황당한 퀴즈 앞에서 인간의 삶만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 인간에게 심장이 뿔으로써 삶이 영위되듯 하루살이 입장에서 심장이 몇 번 뛰는가는 곧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만큼 소중한가. 독재정치와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써졌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를 잃은 인간의 입장은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한다. 다른 편으로 본다면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가치는 그 자체로서 소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행들과는 달리 유독 ‘자유’라는 단어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자유가 간헐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자유’라는 글이 인간처럼 마침표 속에 간헐함으로써 웃음이 유발된다.<sup>23)</sup> 또, 제목도 ‘무제’라고 하여 자유의 의미를 확대하고 강조한다.

이처럼 난센스 시는 예외적 발언을 당연시하면서 독자의 기대를 애초부터 배반하는 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를 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따라서 난센스 시는 다른 어떤

22) Alison Rieke, *The senses of Nonsense* (The University of Iowa press, 1992), p.19 ; 이순욱, 『현대시와 웃음』,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7쪽 재인용.

23) 베르그송은 인간이 비인간적인 특성인 기계적인 것으로 격하되었을 때, 사회적 인 법이나 규범에 일치하지 못하고 경직되었을 때 웃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는 웃음의 격하 이론, 불일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앙리 베르그송, 정연복 옮김, 『웃음』, 세계사, 1992, 18-22쪽 참고.

시보다 언어능력을 이용하거나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다.<sup>24)</sup>

2

우리들은 개(犬)랍니다

성대를 잃어버린 개라는 동물입니다

우리들의 주인님들이 우리의 성대를 정말 끔찍하게 절제  
수술해 버렸답니다 우리의 성기보다 더 소중한 성대를 철철  
남아도는 염전으로 그만 장난인지 연습인지 그런 몸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인님들이나 우리들의 성대  
를 아낌없이 미련 없이 절제수술을 집도한 의사선생님을  
복날에 우릴 개 패듯이 그렇게 패듯이 패야 하겠기에 행진한  
답니다 허긴 씨 없는 수박이 있기가 있지마는 성대를 절제  
당한 우리들은 짓지 못하는 가없는 가없는 그런그런 개들이  
랍니다

3

나의 전생은 대한민국 ○○남도 ○○군 ○○읍 ○○리  
에 살았던 사람 사람 사람이예요

- 「침묵시위」 부분 -

『침묵시위』는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군사쿠데타를 통해 전두환 정권이 자리 잡았던 1981년도에 쓴 시로 광주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1979년 유신체제가 무너지자 뒤를 이은 전두환 군사정권은 3S 정책(Screen, Sex, Sport)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당시 폭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맞아떨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문화정책의 활성화, 유희정책(두발 및 교복 자율화,

24) Alex preminger · T. V. F. Brogan(Co-ed.),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839-840 참고; 이순욱, 앞의 책, 118쪽 재인용.

통금해제 등)을 펼쳤다. 한편으로는 사회악·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 약 6만 여 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그중 약 4만 명이 보내졌다. 그중에는 무고한 시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언론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적 권력 안에 두고자 했다.<sup>25)</sup>

위의 시 속에서 개와 인간이 결합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민중의 집합체로 나타난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표정은 성대를 절단당한 침묵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인지의 차원을 넘어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 인간과 비인간이 뒤섞이고 연결되어 만들어 낸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상태이다. 그래서 모호하고 불안스러우며, 불온해 보이기까지 하다. 바흐친은 이러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힘은 그것이 형태에서 형태로의 이행성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이행성이 바로 민중의 본원적 역량이라고 말한다.<sup>26)</sup>

『침묵시위』라는 제목에서부터 국민의 자유권, 언론 탄압을 암시한다. 이는 중첩된 의미로 강력한 웃음을 유발한다. 여기서 성대를 절단당한 개들이 상징하는 것은 언론의 탄압, 광주 민주화 운동, 국민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침묵시위 현장은 권위주의 정치가 국민에게 요구한 언어라는 이데올로기를 침묵으로 가로지른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치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언어를 통해서 통제와 폭력을 선포하기 때문이다.<sup>27)</sup> 따라서 국민은 권위주의의 언어적 폭력과 확장에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로지르는 그 무엇이 필요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한 표정의 민중은 저항의 몸짓으로 ‘침묵’을 선

25) 정군기,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8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 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4쪽-46쪽 참고.

26)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출판사, 2017, 281쪽.

27) 박인찬, 『타자와 침묵: 멜빌의 『베리토 세레노』, 콘드래의 『어둠의 속』, 그리고 꾸지예의 『포우』에 관한 탈식민 접근』, 『현대영미소설』 제9권, 현대영미소설학회, 2002, 149-172쪽 참고.

택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두렵게 생각하여 절제한 국민의 성대 없음은 오히려 ‘침묵’이라는 몸의 언어를 통해 견고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저항한다. 정치권력이 절제한 국민의 성대 없음이 자신을 향한 저항의 무기로 돌아옴으로써 스스로의 언어를 가로지르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적 현상이 풍자적 웃음을 유발한다.

이선관은 1연 속에 다시 작은 1연, 2연, 3연을 두어 시각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시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여준다. 그는 동시에 지금까지 시의 형식인 연에 대한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각적 효과와 함께 낯선 웃음을 선사한다. 그들은 초복과 중복과 말복뿐 아니라 그 사이의 날에도 침묵시위 행렬을 멈추지 않는다. 계속 늘어나는 시위 현장의 개들 숫자와 개들의 시위 행렬의 반복 자체가 강렬한 웃음을 유발해버린다. 베르그송 역시도 이러한 동물의 의인화 현상이 인간적인 특징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고 보았다.<sup>28)</sup> 개들의 반복적인 침묵시위는 “성기”보다 소중한 “성대”를 절제해 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소중한 성대를 절제하고 “복날에 개 패듯이 꿇던” 주인들을 “개처럼 패주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고 말한다. 이제 개들의 성대를 자른 군사정권이 개에게 맞아야 할 차례로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가치는 하락하고 만다.

2연과 3연에서 시는 고백적 서사, 전생의 이력과 혼합되면서 기존의 엄숙한 규범 문학 형식을 넘나든다. 이는 새로운 웃음의 시학을 창조한다. 개들은 전생에 인간이었으며, “나의 전생은 대한민국 ○○남도 ○○군 ○○읍 ○○리”라는 본적의 밝힘에서 비장한 웃음이 유발된다. “나의 전생”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의 그로테스크함은 섬뜩한 웃음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인간’이었음을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 뇌이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28) 앙리 베르그송, 김진성 옮김, 『웃음』, 종로서적, 1954, 4쪽.

간첩선           최고 50,000,000원 이상  
간첩             최고 30,000,000원 이상  
좌경용공사범   최고 10,000,000 이상

빠짐없는 국민신고  
튼튼한 안보이룩

인쇄업을 하는 나의 이웃이 있는데,  
금년 아홉 살 먹은 아이가 제 엄마보고  
엄마 엄마 아버지 말이야  
매일 술자리에서 아버지 친구와  
정부비방이나 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 들을  
좌경용공사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보상금 타서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엄마 신고하자 하더라는

- 「어떻게 해야 할지?」 부분 -

아홉 살 먹은 아이가 간첩신고 포상금 문구를 보고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의 순박성에서 웃음이 터진다. 여기서 아홉 살 먹은 아이의 발언은 바보의 속성 즉 어리석음의 속성으로 민중의 힘을 상징한다. 이러한 드러냄은 일종의 지적 유희가 아니라 삶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sup>29)</sup> 순박한 아이는 어머니께 아버지가 매일 술자리에서 친구하고 정부를 비방하니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를 좌경용공 사범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포상금을 타서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잘 살자고 한다.

이선관 시인이 이 시를 발표한 시기가 1983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당

---

29) 최진석, 앞의 책, 264쪽.



시 군사정치권력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이다. 권력정치 아래서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험악해 있었는지를 아이의 발언을 통해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는 국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매일 술자리를 하며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알 정도라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좌경용공 사범 포상금이라는 문구를 통해 당시 군사정치권력의 살벌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아이의 발언 속에는 어른들의 개인주의 적인 이기심과 과도한 물질추구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자리한다. “빠짐없는 국민 신고”, “튼튼한 안보 이룩”이라는 공익 포상금문구가 좌경용공 사범 신고와 연결되고 있음에 심각한 웃음이 촉발된다. 웃음은 ‘안보’라는 명목 아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군사정치권력을 향하고 있다.

#### 4. 언어유희와 조롱의 웃음

이선관은 언어유희와 조롱을 통해 우리에게 해학적 웃음을 선사한다. 그는 뇌성마비 2급으로서 어려서부터 타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것은 그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선관은 사람들이 웃음에 인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부당했다는 소외감을 느꼈으며, 타자로서의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이 웃음을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는 다실이었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숨기기 위한 일회성의 가짜 웃음이었음을 비판하고 성찰한다. 이러한 그의 웃음에 대한 인식은 미학적 웃음을 유발하는 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초지일관(初志一貫)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좃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다시

나는 초지일관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다시 좃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또 다시

나는 초지일관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또 다시 좃이 일관으로 알아듣고

- 「나는」 전문 -

「나는」은 유사음의 말놀이를 통한 그 의미의 차이로 인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나는’으로 표현되는 화자는 무언가를 “초지일관”으로 말을 하지만 듣는 상대방은 “좃이 일관”으로 알아들음으로써 소통이 단절된다. 즉 초지일관(初志一貫)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뜻을 지니는 반면 유사음인 “좃이 일관”은 “어마어마하게 큰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면서 웃음을 증폭시킨다.”<sup>30)</sup> 나는 초지일관이라 말하지만 상대방이 “좃이 일관”이라고 알아들음으로써 대화가 계속적으로 단절되고 있다. 나의 신념, 정신은 거대한 성기의 비속어와 계속적으로 연결, 하체 기관의 삶인 생식기관을 지향함으로써 격하된다. 여기서의 격하는 성교와 수태, 임신, 탄생, 포식과 배설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1)</sup> 나의 신념이나 정신의 고상함은 반복되는 비속어의 물질적·육체적 차원으로 이행된다. 즉 나의 정신과 신념의 추상성은 저속화되며 육화되어 버린다. 여기에 민중적 웃음이 있다.

이선관이 화자의 반복 발언과 상대방의 반복 대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소통의 단절’이다. 이때 화자의 억양이 ‘다시’, ‘또다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30) 배대화, 앞의 책, 59쪽.

31) 류중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5, 111쪽-112쪽.

의 화는 실은 상대방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어눌한 발음과 전달하고자 하는 발음의 양자 사이에서 왕복 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고 유치한 기계적 반복, 눈에 익은 형태를 취하면서 웃음을 일으킨다.<sup>32)</sup>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성어를 시 속에 차용하여 유사음의 말놀이를 통해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해학적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소통이 단절된 부당한 사회를 꼬집음과 동시에 과도한 물질적·육체적 욕망을 비판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서울은 음(陰)이다  
 거대한 고래 보○다  
 그 많은 사람을 넣어도  
 다 차지 않은  
 서울은 음이다  
 거대한 고래 보○다

- 「서울」 전문 -

서울 중심부로 몰리는 사람들의 욕망을 비속어 “거대한 고래 보○다”의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앞의 「나는」이라는 시가 남성의 거대한 성기를 통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기표로 작동했다면 여기서 서울은 음(陰)이라고 하여 여성성을 상징한다. 서울은 ‘거대한 암컷 고래의 성기’와 연결되면서 물질적·육체적 하부와 결합된다. 서울은 도시의 중심부이며, 머리이다. 이러한 도시의 중심인 머리가 비속어와 함께 ‘암컷 고래의 거대한 생식기’인 하체로 격하됨으로써 웃음이 유발된다. 서울은 과도한 성교, 임신으로 상상할 수 없이 부른 배, 터질 듯이 포식한 육체의 이미지를 지닌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넣어도/다 차지 않은”이라는 표현에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표현

32) 앙리 베르그손, 앞의 책, 49쪽.

하고 있다. 이선관은 서울이라는 중심도시(머리)를 “고래〇지”라는 하체와 결합시키고 인간을 고래 속으로 넣음으로써 모든 위계와 질서의 영역을 교차해 버린다. 이때 탈출구로서 해방의 웃음이 발생한다.

아이러니적 웃음을 선사하는 시로는 연작시 『관짝 하나·1』, 『관짝 하나·2』, 『관짝 하나·3』가 대표적이다. 연작시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써진 것으로 광주항쟁 현장에서 죽어간 ‘아무개’와 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형상화 한 시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의 부당한 정치에 맞서는 민주시위의 대열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국가비상사태인 국가계엄령을 내렸다. 카를 슈미트는 “주권자는 비상사태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주권자는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을 질서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법질서의 예외자로 만든다.<sup>33)</sup> 전두환 정권의 비상사태 선포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 『관짝 하나·1』은 법 없이도 살 사람과 많은 법(주권자가 상시적으로 만들어내는)이 아이러니를 이루며, 웃음이 유발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그가 이렇게 많은 법을 만들어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볼 때 죽은 당사자는 법을 충실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자질이나 심성을 지닌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법의 효력은 그 법을 따르고 지킬 때 제대로 발휘된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았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법 때문에 허무하게 죽게 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과 많은 법의 대비, 법을 잘 지킴으로써 죽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관짝 하나·2』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이 서서 올라가고 서서 내려

33)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참고; 줄고, 『근대의학 담론이 ‘한센병’에 미친 영향-한하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2집, 한국문학회, 2019, 85쪽 재인용.

오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섬뜩한 웃음을 웃게 만든다. 심지어 '관'은 서서 내려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까지 한다. 죽음의 상징인 관과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의 문은 직유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섞어 버린다. 그리고 관의 인간화를 통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때 엘리베이터에 서서 내려오며 던지는 관의 한마디, "대한민국 만세"는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인간군상은 "한 장의 지폐도 안 되는 친척", "한 닢의 동전도 안 되는 이웃", "한 톨의 유산을 더 받아내겠다"는 "천박한 유가족"들이기 때문이다. 관의 고상함과 인간의 천박함이 대비되면서 쓴웃음을 짓게 만든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지성은 물건인 '관'보다 하락하고 '동전 한 닢, 지폐 한 장도 안 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콘크리트의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 입구는 '관'과 연결되면서 죽음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지닌다. 출입문의 입구는 안과 밖의 들락거림으로써 생과 연관되고 '관'이라는 죽음과 대비된다. 이러한 생과 사의 이분법적 가치가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뒤 바뀌어버린다. 이선관은 아이러니를 통해 통치자의 법 남용, 법과 정치권력의 단합에 대해서 비판하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상징인 아파트 입구와 '관'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생과 사의 이분법적 가치를 전도시킨다. 그리고 관의 고상함과 인간의 천박함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가치나 법, 제도,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하며, 반성하고 성찰하게 한다. 여기서도 친숙한 일상어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용어가 시 속에 자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시 『K씨의 변명』은 열거법, 기대의 저버림, 주인공의 알뜰한 변명과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해학적 웃음을 보여준다. 『K씨의 변명』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거창한 열거를 통해 웃음이 터지게 만든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K씨가 변명의 대상으로 호출하는 인물은 종교가, 예술가, 판

검사, 의사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앞선 인물들은 자신의 직업에 걸맞게 살아갈 거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K씨의 변명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웃음이 유발된다. 우리가 믿었던 종교가, 예술가, 판검사, 의사들이 K씨가 저지른 부정한 행위들을 똑 같이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 된다. 그래서 K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항변한다. K씨가 항변을 하면 할수록 죄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을 저지른 대상을 열거한 후 자신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K씨는 부조리를 저지른 자신의 혐의를 변명을 통해 점점 넓혀간다. 그의 변명은 이제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부조리에까지 도달해버린다. 여기서 허탈한 웃음이 발생한다.

K씨의 과장된 변명은 이제 폭력적인 언사로 바뀌어 “이웃의 양 뺨을 때려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쪽 뺨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가 말한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어주어라.”<sup>34)</sup>라고 한 성경과 상호텍스트성을 갖으며, 의미가 상충된다. 자신이 한쪽을 맞았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양쪽을 때려야겠다는 것이다. 성경구절과 K씨의 변명이 대비됨으로써 웃음이 유발된다. 그의 변명은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함으로써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K씨의 불안은 마지막 연에서 “이건 봉툼니다.”라는 말과 연결되면서 모든 죄를 시인하고 만다. 그의 알파한 변명, 죄를 숨기고자 횡설수설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해학적 웃음을 일으킨다. K씨가 변명을 하면 할수록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명확해지고 만다.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 주어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약성서』, 1985, 마태복음 5장 38절-39절.

## 5. 결론

지금까지 이선관 시에 나타난 웃음을 크게 일회성의 가짜 웃음, 정치 권력과 세태비판의 웃음, 언어유희와 조롱의 웃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그가 쓴 초창기 시들 속에 나타나는 일회성의 가짜 웃음은 감정적 웃음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감정적 웃음의 의미는 미학적 성취의 웃음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나타났다. 이선관의 시 속에 나타나는 감정적 웃음은 양가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울음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없음과 있음, 허무, 일회성의 가짜 웃음과 동반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웃음을 선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울음이거나 없음이거나 허무, 가짜였다. 웃음과 울음, 있음과 없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양가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웃음과 울음, 없음과 있음은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거리였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허무는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먼 거리였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의 웃음 없음은 '거부'였으며,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시적 화자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 속하고 싶어서 마산의 창동 사거리를 자주 산책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웃음 없음', '이상한 웃음소리'거나 '허무', 가짜였다.

따라서 이선관에게 감정적 웃음은 사람들과의 친밀감, 곧 소통의 의미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웃음은 울음이거나 없음, 허무, 비웃음, 가짜 웃음으로 나타난다. 즉 그는 사람들의 웃는 표정을 통해서 소통을 거부당한다. 이는 소수 타자(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약자,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 등)에 대한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과 공감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선관이 시 속에서 표현한 감정적 웃음은 곧 사람들과의 친밀감의 표시였으며, 소통에의 열망이었다. 그의 끈질긴 웃음 찾기는 '일회성의 가짜 웃음'과 만나면서 개인의 처지에 집중되었던 관심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게 된다. 이는 건강한 첫아들의 출산과 맞물

리면서 부당한 정치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그만의 독특한 미적웃음으로 승화된다.

정치적 측면의 풍자로는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을 그만의 독특한 웃음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즉 등장인물들의 반복행위와 말, 형태에서 형태에로의 이행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선관은 이중 격하, 수수께끼, 기계처럼 반복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유신체제와 독재정치의 모순을 비판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중 격하이다. 이선관은 비판의 대상인 군사독재정치나 유신체제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상을 격하시킨다. 그 웃음의 대상은 민중으로서 ‘똥’이나 재래식 화장실, 하루살이, 짐승과 인간, 짐승과 전생을 결합시킨 그로테스크한 인물들로 격하된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인 군사독재나 유신체제 정권이 억압하고 통제된 대상이 낮추어 격하됨으로써 그 대상의 이면에 있는 비판의 대상이 다시 격하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격하의 격하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화시켜버리는 독특한 웃음 전략이다. 이는 이중 격하로 웃음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수수께끼 형식의 시를 통해서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정교하게 드러내면서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수수께끼 시는 고투의 진중한 물음과 황당한 내용의 대비를 통해서 웃음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권력이나 힘도 생명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을 비판한다. 더불어 소수 타자에 대한 삶에까지 생각의 폭을 넓히게 만든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기계음처럼 반복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며, 모순된 발언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을 비춘다. 반복된 주장이나 단답형의 대답, 자조 섞인 목소리는 폭압정치시대상황을 드러내면서 소통의 단절과 억압적 기제로 작동한다. 시 속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민중의 집합체를 통해, 형태에서 형태로 이행하면서 민중의 본원적 역량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군사독재정치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으로서의 비장한 웃음을 보



여준다.

다음으로 언어유희와 조롱의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선관의 시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성어, 우스개, 비속어들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이때 상호텍스트성은 모든 위계질서의 영역을 교차하고 의미에 차이를 발생시키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방의 탈출구로서 웃음을 보여준다. 그가 이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소통의 부재, 과도한 물질적·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현실, 부정이 판을 치는 사회다. 이선관은 인간의 천박함과 사물의 고상함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들을 역전시킨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자의 혐의를 반복되는 변명이나 항변을 통해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여 웃음으로 단죄한다. 그는 시 속에 고백체, 편지, 이력서 등을 차용하여 새로운 시 쓰기를 보여주면서 혐의자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이중의 효과를 내었다.

이선관의 시 속에 나타나는 웃음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소통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선관, 배대화·우무석 엮음, 『이선관 시 전집』, 불휘미디어, 2015.
- \_\_\_\_\_, 『기형의 노래』, 계명학보사, 1969.
- \_\_\_\_\_, 『인간선언』, 한성출판사, 1973.
- \_\_\_\_\_, 『독수대』, 문성출판사, 1977.
- \_\_\_\_\_, 『보통시민』, 청운사, 1983.
- \_\_\_\_\_, 『나는 시인인가』, 풀빛, 1985.
- \_\_\_\_\_, 『살이 살과 닿는다는 것은』, 시대문학사, 1989.
- \_\_\_\_\_, 『창동 허새비의 꿈』, 시와 사회사, 1994.
- \_\_\_\_\_, 『지구촌에 주인은 없다』, 살림터, 1997.
- \_\_\_\_\_, 『지구촌에 주인은 없다』, 살림터, 1997.
- \_\_\_\_\_, 『우리는 오늘 그대 곁으로 간다』, 실천문학사, 2000.
- \_\_\_\_\_, 『배추 흰나비를 보았습니다』, 도서출판 답게, 2002.
- \_\_\_\_\_,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도서출판 스타, 2003.
- \_\_\_\_\_, 『어머니』, 선출판사, 2004.
- \_\_\_\_\_, 『나무들은 말한다』, 바보새 출판사, 2006.

### 2. 참고자료

- 구모룡, 「고통과 사랑, 이선관의 시적 지평」, 『시에』 3호, 김달진 문학관, 2010, 6-17쪽.
- 김문주, 「말의 원음, 거룩한 야생으로 돌아가는 길」, 『문학 심포지엄』, 2010, 6-17쪽.
- 김영재, 『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마산수출 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 기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7.

김종철, 『시의 구원, 삶의 아름다움 - 이선관 시에 대하여』,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1999.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1.

남송우, 『이선관 시인의 현실인식과 세계에 대한 시적 저항 방식』, 『이선관 시세계 학술심포지엄』, 2006, 5-22쪽.

디자인 디비 편집부, 『디자인 디비』, (주)뉴스한국, 2002.

문홍술, 『초기 시에 나타난 원죄의식과 현대인의 소외-이선관 론』, 『문학 심포지엄』, 25-33쪽.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2005.

박서현,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5.

박인찬, 『타자와 침묵: 멜빌의 『베리토 세레노』, 콘드래의 『어둠의 속』, 그리고 꾸지예의 『포우』에 관한 탈식민 접근』, 『현대영미소설』 제9권, 현대영미소설학회, 2002, 149-172쪽.

방민호, 『네거리의 시인-이선관 시』, 『문학 심포지엄』, 2011, 7-21쪽.

배대화, 『이선관의 실천적 시세계의 시학적 특성: 초기시를 중심으로』, 『이선관 시세계 학술 심포지엄』, 2006, 30-44쪽.

\_\_\_\_\_, 『이선관 시의 미학적 특성』, 『가라문화』 24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2, 53쪽-73쪽.

신덕룡, 『이선관 시에 나타난 생명의식』, 『이선관 시세계 학술 심포지엄』, 2006, 23-29쪽.

\_\_\_\_\_, 『이선관 시 연구: 세계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6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7, 133-154쪽.

오덕애, 『근대의학 담론이 '한센병'에 미친 영향-한하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2집, 한국문학회, 2019, 79-118쪽.

이순옥, 『현대시와 웃음』,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2.

- 이영탁, 『이선관 시의 공간성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2.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7.
- 정근기,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80년대 이후 한국의 역대 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1.
- 최재현, 『존던의 초기 시 연구 - 『엘레지』와 『풍자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2.
-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출판사, 2017.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약성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5.
- 한정호, 「사랑의 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75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47-384쪽.
- 홍성하, 「후설에 나타난 무의식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 잠과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1집, 한국현상학회, 2003, 27-48쪽.
- 황혜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니발레스크 이미지와 의미해석: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3.
- 앙드레 베르제 · 드니 위스망, 남기영 역, 『인간학 · 철학 · 형이상학』, 상협종합, 2000.
- 양리 베르그송, 김진성 옮김, 『웃음』, 종로서적, 1954.
- \_\_\_\_\_, 정연복 옮김, 『웃음』, 세계사, 1992.
- 비르질 게오르규, 최규남 옮김, 『25시』, 홍신문화사, 2012.
- 돈 바이얼로스토스키, 신숙원역, 「대화적 비평」, 『바흐친의 대화주의』, 나남, 1990.
- 에릭 스마자, 서상훈 옮김, 『웃음』, 눈출판그룹, 2017.

-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11.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엘리아스 카네티, 강두식 옮김,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2010.
- 마리안 라프랑스, 윤영삼 옮김, 『웃음의 심리학』, 중앙 books, 2012.
-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 셋 잘리, 윤선희 역, 『소비의 정치 경제학 광고 문화』, 한나래, 1996.
- 쇼펜하우어, 곽복록 옮김, 『의미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문화사, 2003.

<Abstract>

## A Study of 'Laughter' in the Poem of Lee Seon-kwan

Oh, Deok-Ae\*

This study examined the laughter in Lee Seon-gwan's poems divided into one-time fake laughter, laughter in political power and criticism of the world, and laughter in language play and mockery. The depraved laughter of one-off, which is the emotional laughter he shows in poetry, is accompanied by crying, and it is ambiguous to show ambivalence. The speaker often walks through Masan's Changdong intersection to find laughter, but it was always stinginess, no laughter, no laughing, and fake laughter that came back to him. But even in this smiley crowd, the speaker does not give up looking for laughter. He continues to pace the Changdong intersection, trying to gain a sense of stability by being pushed and pushed into the crowd. Because being rejected for laughter means being rejected and disconnected from communication, which is causing life to be disturbed by feeling severe isolation, loneliness, and futility.

The political satire is the main reason for the laughter of political power and criticism of the situation. The political satire is the criticism of the 1970s Yushin system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80s. Here, it shows its unique way of laughing through the repetitive behavior of characters, the transition from words and forms

---

\*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forms. In addition, Lee criticizes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system of the Restoration and the dictatorship through double demotion, riddles, and repeated words and actions like machines. In other words, he uses the usual Chinese characters, jokes, and slang words to criticize and correct the absurd social reality. At this time, intertextuality shows the laughter of liberation by crossing the area of all hierarchy and generating or expanding differences in meaning.

Key Words: laughter, ambivalence, double down, grotesque, repeat, implementation, intertextuality, riddle.

- 논문접수 : 2021년 1월 11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7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

